

## 총선 비례 '준연동형' 확정... 민주 '통합형비례정당' 공식화

이재명 대표 '광주 선언'...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 찾겠다"  
위성정당 논란 다시 되풀이... 제3지대 군소정당 이합집산 예상

제22대 총선의 비례대표 국회의원(47석) 배분 방식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적용됐던 '준연동형'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관련기사 3면>

이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불거졌던 여야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논란이 이 또다시 되풀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등이 주도하는 3지대를 비롯해 군소 정당의 이합집산도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제는 비록 불안정하지만, 한걸음 진척된 소중한 성취"라며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놓고 내부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자 이 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하기로 했고, 이 대표는 고심 끝에 이날 준연동형 유지로 결론을 내렸다.

'위성정당 금지법' 같은 제도적 보완 장치도 없이 현행 제도가 유지됨에 따라 정치권이 필수 비례 위성 정당 난립을 방지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1대 총선 때 첫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제는 47석의 비례대표 의석 가운데 30석은 지역구 선거 결과 및 정당 득표율을 함께 반영해 배분하는 제도다. 나머지 17석은 지역구 선거 결과와 연동하지 않는 병립형으로 채운다.

실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163석,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84석을 각각 차지하고 두 정당의 비례정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한국당은 각각 17석, 19석을 가져갔다. 군소정당은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에 그쳤다.

더불어시민당의 경우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도 참여한 비례연합정당이긴 했지만 비례 후보로 공천받은 인사 대부분이 민주당으로 복귀하면서 결국 거대 양당 중심 체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여야의 위성정당 창당 작업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3지대 신당과 군소 정당들도 준연동형에 따른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준연동형 비례제 방침을 밝히면서 '통합형비례정당'을 공식화했다. 정권심판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비례대표용 연합 전선을 꾸

리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러한 연대 과정에서 군소 정당들에 휘둘리지 않고, 주도권을 확실히 쥐고 가겠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가 열린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가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결국 지역구 문제를 포함해서 비례 선거까지 선거에 관한 대연합을 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이라며 "현실적으로 경쟁을 하다 어부지리를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점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발아권 진보 개혁진영, 민주 진영의 가장 큰 비중을 가진 말행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크게 질 수밖에 없고 그 큰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도 당연히 가져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라며 "양보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지만 그게 과연 도덕적이고 멋있고 합리적이냐는 점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에서 "선거제가 이 대표 한 사람의 손에 좌지우지되는 상식 밖의 현실이 참담하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5천만 이 큰 영향을 받을 선거의 선거제를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의 기분에 맞춰서 정한다는 게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게 민주주의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것을 공개적으로 다수당이 이 대표의 뜻에 따른다고 밝힌 것도 정말 코미디 같다"며 "이게 민주주의가 맞고, 공방이 맞나"라고 되물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주장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될 경우에 대비해 위성정당 창당을 준비해왔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명칭을 '국민의미래'로 정하고 지난달 31일 온라인 창당 발기인 대회까지 마친 상태다.

원내 1·2당 모두 비례용 위성정당을 공식화하면서 거대 양당 체제가 22대 국회에서도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3지대에서는 국민의힘 출신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민주당 출신 이낙연 대표와 민주당 탈당파가 이끄는 새로운미래 등이 세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군소 정당들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준연동형이 소수당의 원내 진출을 돕는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반면,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금지하는 규정이 빠진 점을 비판하고 나섰다.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병립형 회귀가 아닌,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를 주장해온 녹색정의당 입장으로서 최악은 피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여긴다"고 밝혔다.

/오영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민주묘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 개편과 관련, 사실상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오늘 밤 준결승... 한국, 90분 내에 이겨야 한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운장(運將)' 꼬리표를 떼고 설욕전에 성공할 수 있을까?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7일 자정 0시 카타르 알라이얀의 '아흐마드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준결승전을 치른다. 상대는 조별리그에서 한국과 무승부를 기록한 요르단이다.

한국은 요르단과 조별리그 2차전에서 만나 2-2 '진땀 무승부'를 기록했다. 전반 9분 만에 손흥민의 페널티킥 선제골이 나왔지만, 자책골을 주고받으면서 간신히 패배를 면했다.

요르단에 일격을 당한 한국은 말레이시아전에서 3-3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고개를 숙였다. 출발이 좋지 못했던 '클린스만호'는 토너먼트

아시안컵 축구, 요르단과 대결  
64년 만의 우승위해 꼭 넘어야

에서도 피 말리는 승부를 이어갔다.

16강에서 만난 사우디아라비아와 승부차기까지 가는 혈투를 벌여야 했고, 후주와 8강전에서는 연장전에 나온 손흥민의 프리킥 결승골로 2-1 승리를 거뒀다.

극적인 장면들이 연달아 연출됐지만 '역대급 멤버'를 꾸린 한국 입장에서는 자존심을 구긴 승리들이었다. 클린스만 감독에게는 '운장'이라는 옷이 못할 타이틀도 붙었다.

한국의 이번 대회 목표는 우승이다. 요르단을 넘으면 결승전에서 이란이나 카타르를 만나야 한다. 이란은 한국의 대표적인 '난적'이고, 카타르

는 개최국으로 안방에서 우승을 노리는 어려운 상대다.

패배와 같았던 무승부를 안겨준 요르단에 설욕하고, 소진한 체력까지 만회해야 하는 만큼 이번 준결승전에서 대승이 필요하다.

64년 만의 우승을 외쳐온 클린스만 감독이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카드를 활용할지 벤치에 시선이 쏠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도로 '포트를 공포' 차량 피손 속출 ▶6면

이토록 유익한 인터뷰 - 한동일 작가 ▶18면

KIA 캔버라 캠프 - 마운드 준비도 '퀵' ▶22면

사랑과 감사의 70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기회도시 광주

국토균형발전·동서화합, 30년 숙원사업

#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

광주-대구를 잇는 동서 횡단 철도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800만 영호남인의 삶을 연결해  
1시간대 이웃으로 상생발전을 이루겠습니다!